내마음 사용

글그림: 안제이

할게 없어서

심심해

엄마에게 혼나서

속 상 해

흑……

흑……

속상해서 울구나니

소 심 해

진 내 마음ㅠㅠ…

처음 시작 하는건

소 소 해

2023. 10. 11

우리딸이 어떤 책을 만들었을까?

기다리는 내내 상상해 봤는데...

역시, 기대 이상으로 아이디어가 팡팡!

소소한 일상에 달콤한 시간 감사해.

다음주도 안제이 작가님의 책을 기다릴게요.

안 제이 작가님을 응원합니다.

화이팅